

8. 그러므로 오직 한가지 남는 것이 있다. 전체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승리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연결고리를 통해 자기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다. 약속의 성취로 말하면 오직 한가지 해결이 있다. 하나님이시다. 미로에서 오직 한가지의 출구가 있다. 은혜요. 선택이요. 믿음이다. 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는 것이다. 여기 시편42:1에 이른 바와 같이 긴 여정이 예비적인 것이다. 오! 하나님이며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은 기회가 우리에게 이르매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마가복음 8:11—13에 나타난 표적 보여 주시기를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분석

손 성 은**

1.1. 도입

사도 요한은 그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들을 기록하는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다.¹⁾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기록하는 목적이 그러하다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던 목적 또한 그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예수님이 계시자이면서 동시에 계시받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라는 표징²⁾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지 않으려고 하셨다는 것은 절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마가복음 8장 11-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그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오신 그의 사역의 목적을 잠시 잊어버리신 것인가? 아니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는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³⁾서라기 보다는 “아니하리라”라는 말을 통해서 알

* * 교회문제 연구소 간사. 부민교회 강도사.

1) 요 20:30-31

2) G.W.Bromiley 편, 킷텔단권신약원어신학사전, 요단출판사번역위원회 역, 서울 : 요단출판사, 1986, p. 707.

3) 막 6:5,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그레이디누스와 리델보스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 그레이디누스는 나사렛의 주민들이 병자들을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반

수 있는 것⁴⁾처럼 강한 확신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본 주제논문은 예수께서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배경과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1.2. 본 기사의 위치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분의 수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은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적대심이 점점 더 상승되어 가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강조되어 진다. 그의 수난받으심으로 이루시는 종으로서의 사역이 8장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러한 전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8:27-33)을 기점으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가가 그 전환을 서술하기 전에, 물고기와 떡으로 무리들을 두 번째(첫 번째는 6:32-44) 먹이신 기사(8:1-9)와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구한 것(8:10-13), 제자들도 충분히 그 기사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8:14-21), 그리고 소경의 눈을 예수께서 뜨게 하시는 특이한 기사⁵⁾를 기술하고 있는 것은 그 전환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세상의 무지함을 대표하는 것⁶⁾일 뿐만 아니라, 거짓된 경건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예수께서 수난을 받게되는 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1.3. 타복음서의 병행 기사와의 관련개요

면, 리엘보스는 나사렛 하기를 철저히 거절하심으로써 이적의 의의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였다"고 설명한다. 헤르만 리엘보스, 하나님의 나라, p 171의 각주 44)를 보라.

4) 이 단어의 문법적 이해는 본고의 3.3을 참고하라.

5) 베드로의 신앙고백 전에 마태는 소경이 눈고침 받게 되는 사건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마가의 독특한 기사이다. 아마도 마가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시는 사건의 대비를 통하여, 벼려들 자들(바리새인들)은 벼려 두신다 하더라도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고쳐 주시려는 의도를 표명하는 듯하다. 그렇게 무지한 제자들 중의 하나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8:27-33)은 참으로 그것을 알게 한 이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인 것(마 16:17)임을 보여 주고 있다.

6) Anderson, Hugh, The Gospel of Mark, The New Century Bible Commentary, Grand Rapids : Wm.B.Eerdmans Pub. Co., p. 197.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기사는 이곳 외에 마태복음 12장 38-42절과 16장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9-32절에 나온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38-42절과 누가복음 11장 29-32절은 병행귀절로써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의 기록이어서, 본 마가복음 8장 11-13절과는 직접적으로 병행되지 않는다. 본 귀절은 5병2어의 기적(막6:30)뿐만 아니라 7병2어의 기적(막8:1-10)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 있어서 5병2어의 기적(마15:13)과 7병2어의 기적(마15:32-39)뒤에 기록된 표적을 구하는 기사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1-4절의 기사이다. 그러므로 본 마가복음 8장 11-13절의 표적 구하는 기사와 병행되는 기사는 마태복음 16장 1-4절의 기사이다.

병행기사를 대조해 보면, 각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다. '행동의 복음'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기사는 '장론의 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것과 비교해 볼 때, 하늘의 천기로써 표적을 말하고 있는 부분(마16:2, 3)을 언급하고 있지 않는 점이 그렇다. 마가복음이 일반적으로 감정적 묘사가 사실적인데 본 귀절에서도 마태복음의 것과 비교해 보면 그 특징이 드러난다. 마태복음에서는 간단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16:2)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마음 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8:12)라고 묘사하고 있다.

문법적인 면에서도 일반적으로 마가복음이 역사적 현재형을 즐겨 쓰는데, 마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태복음 16장 2절의 *εἰπεν* 대신에 *λέγει*를 사용함으로 그 특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면에서 선택된 단어와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주제에 가면서 지적하고자 한다.

단지 먼저 언급해 두고자 하는 것은 각 복음서의 기록목적과 관련해서 문법적 특징이나 선택된 단어, 그리고 표현방식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마가가 예수님이 '마음 속에 깊이 탄식하시며'라고 그 감정을 보다 더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 의하여 힐난 받는 것(11절)까지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수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일반적인 기록목적과 관련시켜 볼 수 있다. 이것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힐난하였다는 마가의 표현을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가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거늘'(8:11)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마태는 '보이기를 청하니'(16:1)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의 기록목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신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 관련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복음서가 본 병행기사 간에 미세한 차이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대에 표적을 보여 주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는 양 기사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2. 하늘로부터의 표적을 구함.

2.1. 질문자.

마가복음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훨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문제는 마태복음의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사두개인들도 왔다고 기록(16: 1)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마가복음의 기술 자체가 질문하려 온 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 힌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8장 15절에서 마가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함께 혜롯의 누룩을 언급하고 있다.

혜롯당은 사두개인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⁸⁾고 하더라도 사두개인들의 주관심이 정치적인 것이고 그 당시의 정치현상을 지지했던⁹⁾ 것으로 보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마태는 마가가 혜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사두개인의 누룩'(16: 6)이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혜롯당원과 사두개인이 호흡이 맞았던 것¹⁰⁾을 보여 준다.

로마인들을 위한 그의 복음서를 쓰면서 마가는 유대인에게 복음서를 쓰고 있는 마태와는 달리 사두개인에 대해서 단 한 번(12: 18)밖에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로마(정권)에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7회나 사두개인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누가와 요한도 사두개인들을 거의

7) 막 8: 11의 '구하거늘'은 *ζητοῦντες*로 현재분사이고, 마 16: 1의 '청하니'는 *επηρωτησαν*로 예오리스트이다. 이것과 관련된 문법적 설명은 본론 2.1을 참고하라.

8) 성서백과대사전,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80, 혜롯당 항

9) Ibid., 사두개 항. 요아힘 예레미야스는 신약성서시대의 사회경제사를 연구한 예수시대의 예루살렘에서 비자독가문인 신홍사제계급 보에루스가문과 사두개파를 관련시 키기도 한다(Jerusalem zur Zeit Jesu, Gottingen: Vandenhoek & Puprecht, 1962, 한국신학연구소번역본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p. 259.). 그는 이 가문과 함께 앤나스 가문, 피아비 가문, 그리고 카미토스 가문 등의 신홍사제계급은 부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지배세력이었던 혜롯왕가와 그의 추종세력이었던 혜롯당파의 결탁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10) 이 상근 주석, 마가복음, p. 137.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은 마가의 의도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¹¹⁾

2.2. 장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혜롯당과 관련됨)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은 그들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마태는 그들이 *προσελ θουτες*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에게로'(προς) 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마가는 누가가 사용한 현재분사 대신에 직설법을 사용하여 *εξηλθον*으로 '…에서'(εξ) 온 것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그 '…에서'가 어디에서이냐는 것이다.

바로 앞절에 예수께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신 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연뜻 보기엔 그들이 달마누다 지방의 자가들 거처로부터(*εη*)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²⁾ 그러나 바리새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앞에서 논증한 것처럼 사두개인들도 함께 나온 것을 볼 때,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과연 일반적으로 귀족사제계층에 속해 있었던 사두개인들이 달마누다 지방에 거하며 살고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 달마누다 지방은 마15: 39에는 마가단으로 나타나고 있는 갈릴리 해변의 한 지역으로 고고학상 미확인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두개인들이 거주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추측해 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련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봉사하였던 사두개인들¹³⁾이 예루살렘과는 아주 멀어진 달마누다(혹은 마가단)지경에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 보다 더 합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F.F.Bruce 나 K.S.Wuest 처럼 그들의 본거지인 유대 땅, 특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곳 달마누다 지방에까지 예수를 시험하려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¹⁴⁾

더우기 마태가 언급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부터 상호간 배타적인 사두개

11) 누가는 단 한 번(20: 27) 언급하고 있고, 요한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 예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마태는 본 기사 이전에 오직 3: 7을 제외하고는 그들을 결코 함께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3: 7은 그들이 예수를 공격하고 있는 귀절이 아니다.

12) Meyer, Heinrich August Wilhelm, Gospel of Mark and Luke, Newyork: Funk & Walnalls, 1884, p. 99.; Taylor, Vincent,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Grand Rapids: Baker House, p. 362.

13) 성서백과사전, 사두개인 항.

14) Wuest, K.S., Mark,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1952, p. 159.: F.F. Bruce의 견해는 이 상근의 마가복음 주석을 참고하라.

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처음으로 함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과 그 과정을 추정해 본다면, 이들이 달마누다의 자기들 거처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달마누다 지방, 곧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그 지역의 자기들 거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 예루살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그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하에서 만나지게 된 것임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상호배타적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나올 수 있었던 과정과 그 상황이 일치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함께 궁리한 뒤에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그 질문은 바로 하늘로서 오는 표적(보이기를, 마16:1)을 구하며(막8:11), 청하는 것(마16:1)이었다.

2.3. 하늘로서 오는 표적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의 표적(*οημειον απο του ουρανου*)를 구한다. 이때 마태는 *οημειον εη του ουρανου*를 구한다고 한다. 마가는 마태의 *εη대신에 απο*를 쓰고 있다. 이것으로 마태는 표적의 기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마가는 표적의 오는 장소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표현의 의미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¹⁵⁾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요구하였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마가가 그 사건을 기술하는데 사용한 언어들을 살펴 보도록 하자.

마가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헐난하기를 시작하였다(*ηρσαντο ουςητειν*)고 한다. 이러한 표현은 간결하고 행동적인 마가의 일반적인 표현과 비교하면 약간 장황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것은 아마도 잠깐의 쉼이 있은 후에 논쟁(헬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¹⁶⁾ 논쟁의 어떤 준비기간을 암시하기도 한다.

그들은 이제까지의 이적은 바알세붑에게 오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고(막3:22), 그 이적들을 땅으로부터의 것인 양 생각하였으며,¹⁷⁾ 그래서 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었다(막3:6).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는가를 모의하면서 논쟁(헬난) 중에 그 기회를

15) Moulton, J.H.,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Edinburgh : T. & T.Clark 1963, p. 25

16) 헨드릭슨, Ibid., p. 451.

17) Ibid., p. 450.

포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을 것이다. 논쟁(헬난)의 준비가 다 끝난 뒤 이제는 그 논쟁(헬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시작한 것은 이었다. 이것은 현재 부정사로서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이 단어는 좀더 부드럽게 사용되어 ‘논의하다’(1:27; 9:10)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문맥상 ‘논쟁하다’, ‘헬난하다’는 뜻을 가지기도 한다. 우리말의 헐난한다는 것은 ‘캐고 따져서 비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¹⁸⁾ 그러므로 논쟁한다는 것의 긍정적인 의미를 고려해 보면, 한글성경이 이미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 기회를 찾으려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ουςητειν* 하였다는 것을, 비난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헐난하다는 말로 번역한 것은 아주 잘한 것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계속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께 온 것이다.

*ουςητειν*의 논의하다는 의미보다는 논쟁하다나 헐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문맥은 바로 그들이 예수에게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할(*ζητουντες*) 때, 또한 그를 시험하면서(*πειραζοντες*) *ουςητειν*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¹⁹⁾ *ζητουντες*와 *πειραζοντες*는 모두 다 현재分사이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구하고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그들의 집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마치 옹고집쟁이가 논쟁 중 궁지에 몰렸을 때처럼 상대방의 주장에 승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련되지도 않는 것들을 주절거리는 것과 같다.²⁰⁾

마가는 *πειραζοντες*라는 말 뒤에 예수를 가르키는 대명사 *αυτον*을 덧붙인다. 마태와는 다르게 마가는 헐난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동작들의 대상을 대명사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것은 수단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가 헐난을 받으시며, ‘그’가 육박당하고 있고, ‘그’가 시험받으시고 계셨던 것이다. 이러한 시험은 그의 능력이나 재주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분 자신, 그 분의 그 분됨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πειραζοντες*라는 말 자체가 그들의 헐난(논쟁)이 진실함이나 무언가를 배울려는 열망으로 된 것이 아니라 기만적으로 그들이 생각하기를 예수께서

18) 동아 세국어사전, 서울 : 동아출판사, 1989.

19) 마태는 그들이 예수를 *ουςητειν* 한 것은 언급하지 않고 단지 시험하였다(*πειραζοντεσ*)는 것과 하늘로서 오늘 표적을 보여주기(*επιδειξαι*)를 청하였다(*επειρωτησαν*)고 한다. 마태복음의 *επιδειξαι*는 반드시 시작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내기’를 청하였다”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것이다.

20) Calvin, Commentary on Mark, The Saint Andrew Press 역, Grand Rapids : Eerdmans Publishing, 1972, vol.2., p. 175.

자기들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아니면 최소한 그들의 헐난(논쟁)의 의도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음을 나타낸다.²¹⁾

이것은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이 예수가 메시야인지 아니지를 확증하기 위한, 단순한 이적²²⁾ 그 이상의 어떤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²³⁾이 아님을 말한다. 예수께서는 이제껏 수많은 이적을 보여 주시고 계셨고(3:1; 4:35-41; 5:1-20, 25-34, 35-43; 6:32-34, 53-56; 7:24-30, 31-37; 8:1-9), 그 하나 하나님의 이적은 헤르만 리델보스의 결론처럼 그가 메시야인 것의 표적²⁴⁾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메시야됨의 확증을 위한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들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 표적을 통하여서 알아야 할 어떤 깨달음을 요구한 것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선입견으로 말미암는 준거에 따라 예수를 비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였던 것²⁵⁾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들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그들의 위선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양 거짓된 경건으로 자기들을 가장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은 이미 주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요6:51).²⁶⁾ 그들은 원하지도 않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선자들이다.²⁷⁾

표적(*οπημειον*)이라는 말을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술하는 중 본 기사에서 처음 사용하고 있다. 이 단어는 예수가 참으로 신적 능력과 메시야적 권

21) Calvin, Ibid., p. 176.

22) 단순한 이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여기서 단순하다는 것은 이전까지 보아 왔던 그런 류의 것이라는 의미에서 단순하다는 것이다.

23) 렌스키, 마가복음 주석, 배 영철 역, 서울:백합출판사, p. 285; M.F.Sadler의 마가복음 주석에 나타나는 견해도 렌스키의 것과 유사하다(London: George Bell & Sons, 1892, p. 161).

24) Herman Ridderbos, *The Coming of the Kingdom*, 오 광만 역, 서울: 엠마오 출판사, 1987, pp. 167-175.

25) Williamson, Lamar, Jr., Mark, Atlanta: John Knox Press, p. 143.: “They seek sign not for enlightenment but because they think they already know what God must do. They want to measure Jesus against their preconceived criteria.”

26) 바리새인들은 5병2어의 기적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표적을 요구할 때에는 열세 그런 류의 기적을 두 번이나 행하신 뒤의 일(마 6:35-44; 8:1-10)이기 때문이다.

27) Calvin, Ibid., p. 176.

능을 가지고 행동했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여, 그가 분명 ‘하늘로부터 온 자’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며,²⁸⁾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것(요20:31)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신 표적을 ‘하늘로서 오는 표적’과는 ‘다른’ 표적인 양, 마치 땅에서 오는 표적인 양 생각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으로 그들의 완악함과 불신앙을 나타낸다. 이것이 예수께서 표적 주시기를 거절하신 의도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3. 예수가 표적을 주시기를 거절함

3.1. 탄식하심

바리새인들이(사두개인들과 함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자 예수께서는 그의 마음 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밀씀하셨다(*αναστρέναγας τῷ πνευματὶ αὐτοῦ λεγει*). 여기서의 문제는 왜 특별하게 ‘깊이’(*ανα*) 탄식하셨다고 마가가 표현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마가는 이미 귀먹고 어술한 자를 예수께서 고치실 때, 그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7:34)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깊이 탄식하였다’는 표현은 마가가 이곳에서 한 번 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특별한 단어이다.

이것은 귀먹고 어눌한 자를 보실 때보다 더 깊이 탄식하셨음을 말하며,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 마음을 폐뚫어 보시면서 어느 때 보다 더 그 마음의 형편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한다. 더욱기 마가는 탄식하셨다는 말 뿐만 아니라, ‘마음 속에 깊이’ 탄식하셨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 탄식은 불노와 슬픔이 뒤섞여서 마음의 가장 깊은 밑바닥으로부터 솟아 오르는 것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밑바닥까지 뒤흔들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²⁹⁾

그렇기 때문에 이 탄식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이었기 때문³⁰⁾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집요한 불신앙 때문³¹⁾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불신앙은 한 번 정도의 실수에 의한 것이거나 무지에 의한 것이

28) Herman Ridderbos, Ibid., p. 172.

29) Swete, H.B., *Commentay on Mark*, Grand Rapids: Kregel Publications, p. 168

30) Wuest, K.S., Ibid., p. 160.

31) Sadler, M.F., Ibid., p. 162.; 칼빈도 그의 마가복음 주석에서 예수께서 그 사람 들이 ‘집요하게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obstinately resisting God)을 보고 마음 속 깊이 탄식하셨다고 한다(p. 177).

아니라 계속적인 고의적 악의 (deliberate malice)³²⁾에 의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러한 계속적인 고의적 악의를 발견하고 마음 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던 것이다. 그 탄식에는 Swete의 말처럼 정녕 슬픔과 분노가 뒤힘벽이 되어 있었다.³³⁾

그렇게 분노와 슬픔이 치밀어 오르는 탄식을 하신 뒤 말씀하시는 것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는 반문이다.

3.2. 예수의 반문의 의미

*Tι (어찌하여)*는 '왜' (why)라는 뜻을 가진 의문사이다. 예수님의 이 반문은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이유나 원인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계속적으로 고의적인 악의를 가지고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마 16:4)인데, 자기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표적을 무엇하려고 구하느냐는 책망조의 반문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느냐고 반문하지 않고, 그저 '표적'을 구하느냐고 반문하고 계신다. 이 표적에는 정관사도 붙어 있지 않다. 문맥을 통해서 이 표적은 분명히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무런 정관사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표적 그 자체가 메시야됨의 신적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 리델보스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그 표적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느냐? 고 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고 할 수 있는 것이다.

η γενεα αυτη (이 세대)란 말은 일차적으로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과 사두개인들)을 가르킨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 '어찌하여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느냐?'는 식으로 묻지 않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고 묻는 것은 바리새인으로 대표되어지는 와악한 불신양자들,³⁴⁾ 즉 예수를 빙아들이기를 거절하는 모든 유대인들³⁵⁾에게 그의 반문을 확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모든 세대에 걸쳐 사는 불신 양자들에게 물으시는 질문이기도 할 것이다.

마태는 이 세대의 표적을 구하는 것의 모순과 허위를 천기의 예를 들어 지적하고 있다 (마 16:2-3).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는 것이다.³⁶⁾ 마태는 천기가 이미 분별되어지는 것처

럼 시대의 표적이 주어져 그 시대의 의미가 분별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묻는 것은 그렇게도 명백하게 표적이 제시되어져 있는데도 하나님의 왕국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³⁷⁾ 그러나 마가에게 있어서는 그런 표적이 이미 제시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한 암시가 예수님의 반문에 들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단지 바리새인들, 즉 고의적으로 계속적인 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경건으로 가장하고 있는 자들의 거짓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다.

3.3.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다는 언명의 의미

그들의 악의와 거짓된 경건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실로 대답하신다. 그가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οψην λεγω υμιν*)라는 말은 일반적인 생각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혹은 적어도 상당히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실 또는 엄숙한 사실을 소개할 때 사용하는 관용구이다. 그러한 중요한 사실 또는 엄숙한 사실로서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이다. *ει δοθησεται τη γενεα ταυτη σημειον*은 귀결문이 없는 가정법 조건문으로 직역하면, '이 세대에 표적이 주어 진다면'이다. 이것은 히브리어법에서 신성한 맹세를 통해 강한 부정적 의지를 표명하는 관용구이다.³⁸⁾ 이때 생략된 귀결문은 '내가 죽을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별을 내리실 것이다'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³⁹⁾

이러한 관용어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려 하신 것은 그의 강한 의지의 표명이시다. 이 세대에게는 결단코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다. 곧 표적이 그들이 믿음을 가지기에 충분하게 주어졌는데도 계속적으로 의도적인 악의를 가지고 믿지 아니하면서 그래도 경건한 체하며,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위선과 거짓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에게는 결단코 표적을 보여주시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표적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께서다. 왜냐하면 *δοθησεται*는 미래직설법 수동태 삼인칭 단수형인데 히브리어에서 수동태로서 '주어질 것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⁴⁰⁾ 이것은 예수님께서 표적의 기원과 근원을 아버지 하나님에게 돌리고 계시는 것을 보여준다.

37) Calvin, Ibid., p. 176.

38) Moulton, J.H., Ibid., p. 333.

39) Wuest, K.S., Ibid., p. 160.

40) Anderson, Hugh, Ibid., p. 197.

32) Calvin, Ibid., p. 176.

33) Swete, Ibid., p. 168.

34) 렌스키, Ibid., p. 287.

35) Rawlinson, A.E.J.,

36) 여기서 '시대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των ημων*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강한 부정적 의지와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소원은, 곧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이 세대에게 표적이 주어지면'은 곧 '이 세대에게 표적이 주어져 구원이 있게 된다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구원을 예수께서 원하고 있지 아니하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세대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심판이었다.

그의 말에 심판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은 마태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마태는 요나의 표적 의에는 이 세대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한다(마16:4). 이것은 요나의 체험 속에서 미리 예시된 예수의 죽은 자들로부터의 승리의 부활이, 죄로 강파해진 모든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이 세대를 심판하실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⁴¹⁾ 즉 예수께서는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하되 자신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 심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겠기 때문이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된다(고전1:22-24). 그의 지상사역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어떤 이는 이때까지의 신약연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구원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취급하여 온 문제점을 저적한다.⁴²⁾ 예수께서는 구원만이 아니라 심판하시려고도 오셨던 것이다. 자신의 오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무리들을 향하여 그는 친히 당신의 오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려 왔노라"(마10: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눅12:51)

여기서 검과 분쟁은 심판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현상을 상징적으로 묘사한다. 검으로 상징되는 분쟁의 과정을 통하여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주어진 심판의 시작이다. 지금도 그는 그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온 인류 앞에 제시하면서, 그 증거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심판하고 계신다. 그런 심판적 측면의 의도를, 표적 보여 주시기를 거절하심으로 예수께서는 극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다.

41) 헨드릭슨, Ibid., p. 453.

42) 황 창기, The Judgement of the Lord in the Sermon on the Mount, A the in Fulfi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Olgree of Th.D.Cpotch.

결 론

마가는 이 짧은 삽입구절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고의적인 악의를 가지고 위선과 거짓된 경건으로 가장,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으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불신앙자들에게 경고를 한다. 곧 그들의 위선과 거짓된 경건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입을 통하여 언급된 가장 강력한 심판의 경고를 통해서 잘 표현되어져 있다.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이 언명의 의도는 예수께서는 거짓된 경건의 고의적 불신자들이 심판받기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는 이 세대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심판받기를 원하셨으며, 지금도 또한 그러하시다.